

데스크 초대석

한국시인협회 오세영 회장

등에서 깨어나
인간으로 지금 막 환생해서
걸어 나오는 미루어,
이 세상 첫걸음에
알 듯 모를 듯 입가에 흘리는
그대 미소는
진정 무엇을 말하려 함인가.

(중간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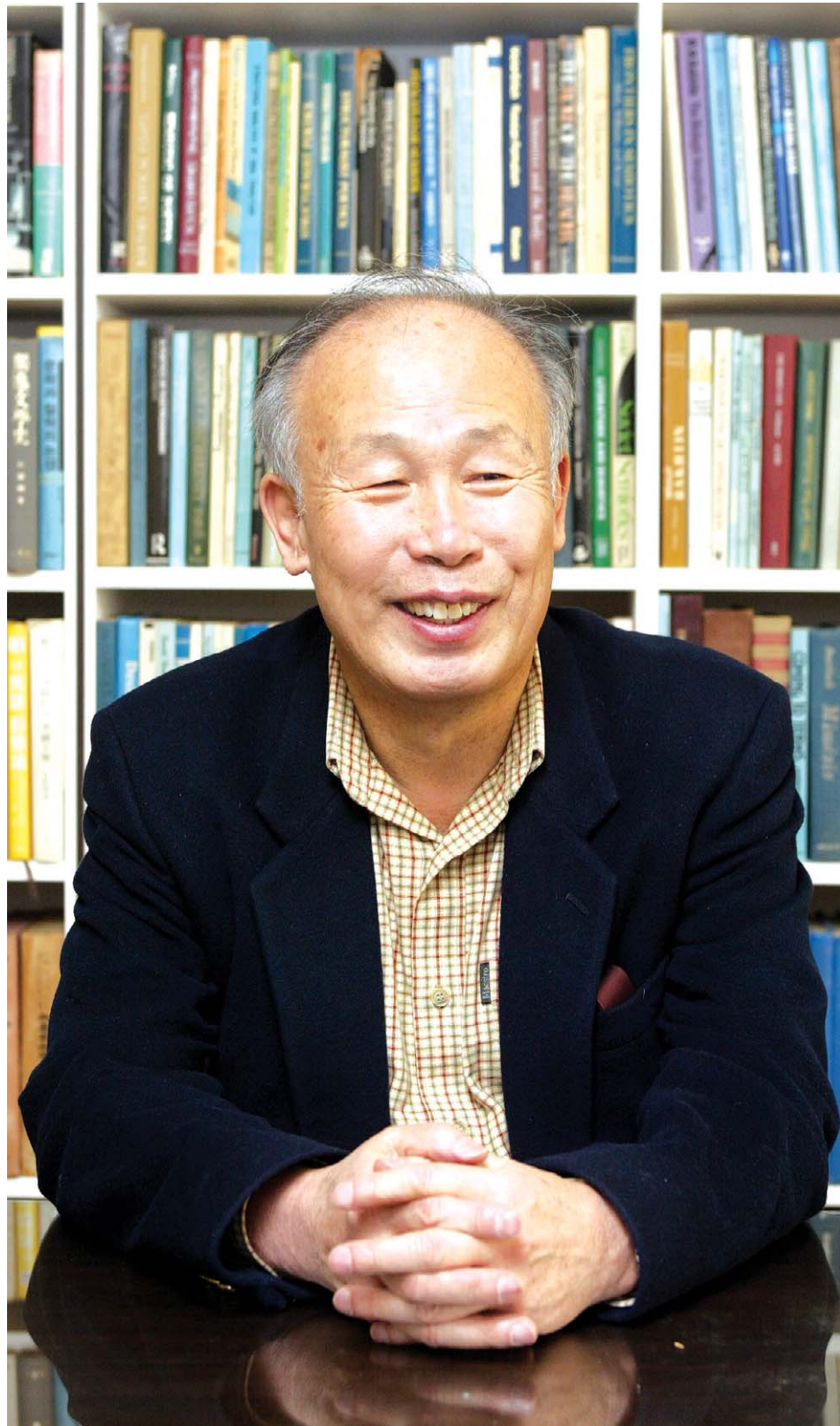
한 손이 연꽃에도 우주가 있다면
그대를 막 잡아서 깨운
암벽의 진달래
나무도 아름다워 그런 것인가.
돌도 불성(佛性) 받아
인간될 수 있음을
한날 미소로 깨닫게 해주
서산(瑞山) 유산면(雲山面)
마애삼존불.

- '서산마애삼존불' 부분.

시인 오세영(한국시인협회장) 선생의 눈에는 서산 마애삼존불이 '부처'가 아니라 '인간'으로 비친다. '인간'이 곧 불성을 가진 존재, 즉 '부처' 이기에. 다만, 돌이 부처가 되고 부처가 인간이 되게 하는 '미소'가 암벽의 진달래로 피어 있음을 시인은 보고 있는 것이다.

시의 길을 나선지 44년, 17권의 시집을 상재한 오세영 선생은 이제 국토를 노래한다. 지난해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1000편의 시가 담긴 <오세영시집>을 내며 한 고비를 정리한 오세영 선생이 가는 길은 특별하지 않다. 그저 시의 길이요, 우리가 어우러져 사는 땅위의 평범한 길들이다. 그러나 그 길에서 오세영 선생은 '국토의 혼'을 보고 '국토의 육체'를 본다. 그리고 그 국토에 현사(獻詞) 하는 아름다운 우리말들을 그대로 시가 된다.

17권의 시집과 20여권의 논문집을 내며 강단을 지켜 왔던 오세영 선생은 "가르치고 글 쓰는 일을 버렸는데 이제 시간이 많아졌으니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며 인사동 언저리에 작은 토굴을 마련했다. 아직 서가(書架) 정리도 끝나지 않은 토굴에서 시인 오세영 선생에게 '시의 길'을 물었다.



-선생님께 시는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다른 방법이 있지요. 권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등등 말입니다. 목적은 길을 만들어요. 목적에 이르는 길.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 존재의 목적과 수단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홀로 살 수 없고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상식적인 삶의 길인 겁니다. 인간관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우선, 군림과 복종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 속에서 궁극적인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과 배움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 역시 이해가 어렵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 행복을 주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목적 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자기를 기쁘게 희생하는 사랑의 관계야말로 행복한 관계입니다. 바로 여기에 시가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행복하게 해주는 힘을 시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 시는 살아가는 방법 다시 말해,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이어가는 길입니다. 시는 사랑을 소통하는 가장 위대한 길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관계에서 시가 더 깊이 지향해야 할 '무엇'이 있는지요?

“시는 행복 이어주는 위대한 소통 수단”

있다면, 윤리성이겠지요. 문화도 최후에는 윤리와 만나게 됩니다. 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기여해야 합니다. 윤리란 도덕과는 다른 인간의 근원적인 관계입니다. 누가 시를 써서 누군가에게 존경받으려 하거나 시가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주장하거나 나는 시밖에 모르는 시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시인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 목적이라면, 그런 인식이라면 시로써 인간관계의 행복을 실현시킬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간 선생님의 시가 인간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최근의 시편들은 국토를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발행된 17번째 시집 <임을 부르는 물소리 그 물소리>는 우리의 산과 들과 강을 노래한 시들로 가득 차 있더군요.

나이 탓이겠지요. 내가 살아 온 공동체에 대한 반성 같은 것 같습니다. 시인으로서 이 세상의 일원으로서 살아오면서도 민족과 국토에 대해 감사해 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 한 몸이 흙으로 다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 길 때면 민족과 국토가 배풀어준 크나큰 축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감사함을, 시인은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일제강점기의 영향이겠지만 지나치게 열등감에 젖어 있거나 자기비하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 온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의식은 벗어 던져야죠. 조국의 강산에 드러나 있거나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국토는 우리 민족의 육체이고 한국어는 우리의 영혼 아닙니까?

-앞에서 말한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관계'에서 인간의 의미를 국토로 확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 국토야말로 우리의 '큰 자아'니까요. 한국의 시인이라면 한국(민족)의 언어로 한국의 땅에 깃든 아름다움을 시로 써야 합니다. 한국의 시인이 세계적인 시인이 되려면 당연히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삼아야 합니다. 현대시를 쓰는 입장에서 나는 늘 '모더니즘의 언어적 기교로 전통동양정신을 지향하는 서정시를 쓰겠다'는 모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선생님은 '순수문학'의 평을 들으셨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순수문학이 뭐니까? 그럼 비순수문학도 있나요? 문학은 그 자체로 순수입니다. 문학을 이념의 도구로 사용하려면 경향이 있던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나는 그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참여문학도 인정했습니다. 현실에

대한 참여 아닌 것이 어디 있나요? 일제 강점기에는 무엇보다 조국의 해방이 필요했고 문화도 그를 지향했잖아요. 시대에 따라 더 크게 여겨지는 가치가 있을 뿐 문학 본래의 뿌리는 참여와 순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이라는 것도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완전한 것이 있나요? 인간자체가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불교에서도 깨치지 않은 상태를 중생이라 하고 깨진 존재를 '부처'라 하는데 지금 여기의 중생들에게 완전을 말할 순 없는 겁니다. 나는 참여문학이 문학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할 뿐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분이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는 창작을 근본으로 하고 창작은 자유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이념적)규정에 의해 창작의 자유가 제한된다면 진정한 예술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불교와 시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는 시도 종교라고 봅니다. 다만, 시라는 종교에는 신(神)이 없지요. 신이 없는데 종교가 되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종교와 시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진리입니다.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 모순의 진리입니다.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 진리는 과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시는 논리를 초월한 모순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지요. 시를 쓰는 자는 창조자입니다. 진리의 창조자, 시라는 종교는 신을 섬기지 않지만 시인 스스로가 창조하는 존재(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대문호 가운데 철저한 종교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단독한 불자라고 말할 자신은 없지만, 절에 가서 글쓰길 좋아합니다. 절에 가면 세속적 관심사를 떠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년퇴직이 더 멀다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우리 국토 예찬한 17번째 시집 발간 "불교설화 토대로 시 창작 하고 싶어"

-이따금 토굴(작업실)을 마련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간 쓰다가 완성하지 못한 글들이 있어서 우선 그것들 먼저 손을 댈까 합니다. 시 창작에 대한 텍스트를 쓰다가 중단된 것부터... 그리고 불교설화에도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불교설화를 토대로 호불호 기를 쓰고 싶어서요. 지난 20여 년간 저와 함께 해온 '척진시 동인회' 회원들과 여기서 합평회도 하고 문학기행도 가고 싶고... 정년퇴직을 해도 할 일이 참 많군요.(크게 웃음)

글=임연태 부국장 사진=박재환 기자

대한민국 운명록

運命錄

과학적으로 證明된 精確한 佛理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학계에 佛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 서적구입 문의 032)665-8472
교보문고, 전국대학서점, 불교서적

전수생 모집

- 스님이나 불자로서 포교원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분
- 해광스님 직강
- 문의 : 010-3730-5247

일반상담

- 해광스님의 운명 상담을 원하는 분은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 예약문의 : 032)665-8472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3-7 인터넷 다음에 <금강선원 해광스님>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역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高音質 무선마이크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시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호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